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3년 3월 2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, 김장희 서기관(02-2110-5634)		

산학연관이 함께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다

- 3.20(수), 「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」 발대식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는 창조경제의 주축이 될 자동차 산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 「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」 발대식을 '13.3.20(수)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음

※ 발대식 계획

- 일시/장소 : 3.20(수) 11:00~15:00, 더케이서울호텔(舊 서울교육문화회관) 거문고홀
- 참석자 :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,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, 자동차부품연구원장, 자동차산업학회장, 자동차공학회장,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, 완성차사 및 부품사 주요 임원,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

□ 최근 고유가 및 각국의 환경규제, IT융합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요소가 다변화되고 있으며, 소비시장도 급변하고 있음

○ 해외 주요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확대 추세하에서 중소·중견 부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, 선진 노사문화 도입도 자동차산업의 장기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과제

○ 그린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기술이 우위를 차지할지 불확실성이 높아, 다양한 그린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

○ 스마트카 부문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자동차와 전자 업계간 교류가 보다 확대되는 추세

□ 지식경제부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, 중소부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차세대 자동차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「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」을 발족하게 되었음

○ 포럼은 ①산업경쟁력 분과, ②부품산업 분과, ③ 친환경차 분과, ④스마트카 분과로 구분되며, 분과별로 완성차 및 부품업계, 연구소 및 대학교수, 유관기관, 정부 관계부처 등 30여명으로 구성

○ 3월 발족이후 5월까지 분과별로 5-7회 모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논의할 예정임

- (산업경쟁력 분과)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제고, 국내 투자 확대방안, 선진 노사문화 도입 등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논의
- (부품산업 분과) 부품업계 생산성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확대, 완성차사와 부품업계간 동반성장 방향 등을 논의
- (친환경차 분과) 그린카 발전전략('10.12월)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를 평가하여 그린카 기술개발·보급·산업기반 등 발전방향 도출
- (스마트카 분과) 글로벌 스마트카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기술개발, 인프라, 제도정비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 발전방향 도출

□ 발대식에 참석한 남기만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은 금번 포럼이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, 부처간·업종간 칸막이를 없애 창조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

○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,

- 분과위원들의 현장방문 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

○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도 분과위원으로 초청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 도모

○ 스마트카 분과는 IT·전자 업계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여 업종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'산업간 융합'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 제공

□ 이종욱 자동차산업학회장(서울여대 교수)는 첫 번째 주제발표 「자동차·부품산업의 현주소 및 발전과제」를 통해,

○ 자동차산업에서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,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

○ 이를 위해 ① 부품업체들의 고급 기술인력 확보 지원 및 유형별 글로벌화 전략 수립, ② 미래형 자동차 R&D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상생협력 전략, ③ 자동차 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

□ 전광민 자동차공학회장(연세대 교수)은 「산업융합을 통한 차세대 자동차산업 발전방안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,

○ 차세대 자동차가 해결해야 될 핵심문제로 연료소비 감소, 안전, 편의성 증가 등을 제시하며, 이를 위해 연비개선, 전기차 등 친환경차, 자율주행 자동차, Connected vehicle 등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역설

○ 특히, 앞으로 기계, 재료, 전기전자 등 전통적인 자동차기술의 영역뿐만 아니라, BT, ET, IT 등 신산업과의 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

□ 지식경제부는 향후 두 달간의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5월말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하고, 이후 동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책화시킨다는 방침임

[첨부] 「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」 발대식 계획

첨부 「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」 발대식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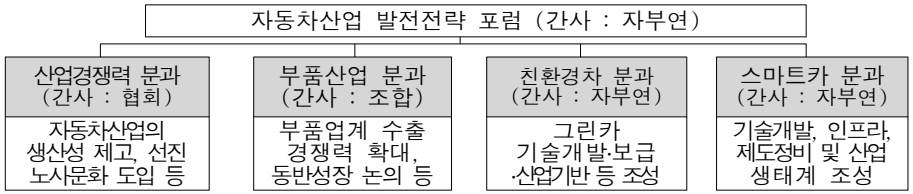
◇ '창조경제'의 주축이 될 차세대 자동차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, 중소부품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산·학·연·관간 「논의의 장」 마련

□ 「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」 개요

○ (목적) 그린카, 스마트카 등 산업융합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자동차 산업발전 방안 마련 및 중소 부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

○ (구성) 4개 분과별,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30여명 내외로 구성
-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

○ (운영기간) '13. 3월~5월 (분과별 월 2회, 총 6~8회 기준)



□ 발대식 회의 계획(안)

○ 일시/장소 : 3.20(수) 11:00-15:00,
더케이서울호텔(舊 서울교육문화회관) 거문고홀

○ 참석자 :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,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, 자동차부품연구원장, 자동차산업학회장, 자동차공학회장,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,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

○ 주최 : 지식경제부 / 주관 : 자동차부품연구원

○ 세부 행사계획(안)

시 간	주요내용	비 고
11:00-11:05	개회사	남기만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
11:05-11:10	환영사	허 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
11:10-11:35	[주제발표1] 자동차·부품산업의 현주소 및 발전과제	이종욱 자동차산업학회장
11:35-12:00	[주제발표2] 산업융합을 통한 차세대 자동차산업 발전방안	전광민 자동차공업학회장
12:00-13:00	오찬	
13:00-15:00	분과별 회의	(비공개)